



‘공동의 기원’ 포제와 당굿… “전승환경 점검을” “시 가까이” 출발 알린 머정문학동인

국가유산청 무형유산 아카이브 ‘제주 포제와 당굿’
의례 각각 다르고 변화 속 전승 이어지지만 과제도

제주도의 대표적인 마을 제의인 ‘제주 포제와 당굿’. 마을과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토대가 된 포제와 당굿은 의례 방식이 각각 다르지만 공동의 기원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다. 근대화와 산업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마을 공동체의 해체, 인구 감소, 세대 단절 등으로 인해 제의의 전통적 맥락이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보전하려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마을 공동체의 결속과 지속을 이어온 마을신앙인 제주도의 동제(洞祭), 포제와 당굿의 전승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유산청이 최근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www.iha.go.kr)’를 통해 공개한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제주 포제와 당굿’에 담긴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유산청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에 걸쳐 진행한 지역별 공동체의 주요 마을신

앙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화연구의 1차 결과물이다. ‘서울 부군당제’, ‘경기 도당제’, ‘충청 산신제와 거리제’와 함께 실린 ‘제주 포제와 당굿’에는 제주지역 공동체 의례문화의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조명하고 마을신앙인 동제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담아냈다. 과제 연구에는 제주학연구소 강정식·류진옥 연구원이 공동연구원으로 함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제는 의례에 따라 기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포제는 문자 중심의 제의이고, 당굿은 구술 중심의 제의이다. 포제는 축문을 통해 기원하고 당굿은 오로지 말로 기원한다. 또 동제는 의례에 따라 권력 구도가 다르다. 포제는 주민들 스스로 벌이는 제의이고, 당굿은 전문 사제자인 심방에게 맡겨서 벌이는 제의이다. 포제는 주민들 스스로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당굿은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연구원들은 제주 동제가 변화 속에서도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입춘굿(관덕정, 2013년). 국가유산청 ‘제주 포제와 당굿’ 갈무리.

지니고 있다며 현재 제주도 동제의 전승환경을 점검하고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동제 전승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들은 “전승환경의 변화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은 인구 감소이다. 주민이 감소하고 의례 참여 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제의 전승에 대해 공감하는 주민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동제의 변화 가운데 또 하나는 공동체 범위를 넘어서는 축제화이다. 마을공동체의 의례가 외부 구경꾼의 참여로 축제화 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마을 공동체 구성원은 오히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있어 문제이다. 축제화가 온전한 전승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제는 공동체의 의례이지만 동제의 공동체적 성격이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공동체가 부상하면서 이러한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에 “전승환경 점검은 전승력의 유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작업이어야 한다. 전승환경의 변화에 따라 동제가 적절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동제의 변화 양상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제주 포제와 당굿의 역사적 배경과 신앙적 구조, 포제와 당굿이 지닌 학술적 의미와 문화적 특징과 고유성, 현재 전승되는 포제와 당굿의 대표 사례 등이 담겼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 시인 8명 뜻 모아
창립한 시학 전문 동인

‘시’를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최근 출발을 알린 ‘머정문학동인’의 이야기다.

머정문학동인은 제주 출신이거나 제주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이 뜻을 모아 만든 제주 시학(詩學) 전문 동인이다. 지난 17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아인스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그 시작을 알렸다.

동인의 이름인 ‘머정’은 ‘행운’을 상징하는 제주어다. 이 안에는 시문학을 통해 시민과 선한 기운을 교감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현재 동인 참여 시인은 고길선·윤봉택·윤성조·윤정아·이옥자·이창주·한성국·한천민 등 8명의 시인이다. 창립 회원은 서귀포 출신이거나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영역

을 넓혀 제주도내에서 시 창작활동을 하는 시인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머정문학동인은 올해 사업으로 동인의 결속과 시학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 만남을 가지며 동인의 창작품을 합평한다. 또 매년 10월 30일에는 동인지 ‘머정문학’을 펴내고 시화전, 시낭송 등 프로그램도 이어갈 계획이다.

회장으로 선임된 윤봉택 시인은 “머정문학동인은 동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창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인들이 서로 교감하고 시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뜻으로 출발한다”며 “제주 문학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말했다. 부회장에는 한천민 시인, 감사에는 고길선 시인, 편집위원장에는 이창주 시인, 간사에는 윤정아 시인이 각각 선출됐다.

박소정기자



머정문학동인 시인들.

문화가 쏙지

‘미래를 응원해’ 진로특강

제주시 탐라도서관은 도내 청소년을 위한 진로특강 프로그램 ‘너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해’를 이달 31일 오후 2시 도서관 강의실1에서 운영한다.

이번 특강에는 청소년 도서 ‘AI 시대, 나는 무엇으로 빛날까’ 등을 펴내고 현재 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진로교사인 최영숙 작가가 강연한다.

빠르게 변화가는 시대 속에서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AI의 이점과 부작용을 살펴보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책 읽기·놀이·만들기’

제주시 에월도서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 책 읽기·놀이·만들기 활동을 결합한 참여형 문화·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주제로 한 ‘놀명 배우명 제주 책보따리’, 그림책과 색채 활동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림책 컬러 테라피’, 신년을 맞아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한 ‘2026 붉은 말의 해 마카롱 만들기’, 그림책을 읽고 전통 놀이를 함께 즐기는 ‘그림책 읽고 전래놀이 한마당’이다.

도민 참여형 전시 공모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전시 공간을 지원하는 ‘2026년 도민 참여형 전시 지원 사업’을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모한다.

사업 공모 자격은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문화예술인과 단체다. 박물관은 전시의 취지와 전시 주제, 지역 문화와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전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전시에 대해서는 박물관 고으니모를 대관을 지원하며 월별 최대 3주간 전시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서귀포시는 2026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 공모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문화예술 사업 또는 행사를 추진하려는 서귀포시 소재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이다.

이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문화예술사업 또는 행사를 원도심을 포함한 서귀포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과 읍면지역 중심의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6000만원 규모이고, ‘생활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3000만원 규모다. 박소정기자

에월뮤직팩토리 ‘에센시아 어린이합창단’ 창단

내달 4일까지 단원 모집

제주 복합문화예술공간 에월뮤직팩토리가 ‘에센시아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한다.

19일 에월뮤직팩토리에 따르면 합창단 이름인 ‘에센시아(Essencia)’는 라틴어로 ‘본질’을 의미한다. 화려한 기교나 퍼포먼스에 치중하기보다 발성·시창·청음 등 기초 음악 교육을 공고히 해 음악의 근본인 ‘하모니’와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단원

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가진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오디션은 다음 달 7일 진행된다. 합창단은 단원 선발 후 5월 5일 어린이날 공식 창단 발표회를 열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초청 공연을 포함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월뮤직팩토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사무국(전화 064-711-9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승진
축 CONGRATULATIONS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장)



양행석

부: 양윤기·모: 강명아·배우자: 김영희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사촌 일동

승진
축 CONGRATULATIONS
서기관



박준수

(성유공계 16세)

서기관(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밀성(밀양박씨)은산부원군파 제주도총회
회장 **박승석** 외 종원 일동

수상
축 CONGRATULATIONS
국무총리 표창



고향심

국무총리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두루마리 일동

수상
축 CONGRATULATIONS
대통령표창



박재덕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대장)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제주지역대
대원 일동